시끼보의 당면사업전략

해외거점과의 연결적 소재생산체제 구축

시끼보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연결자회사(連結子會社)인 “머메이드 · 텍스타일(Mermaid Textile : 약칭 MERTEX)을 비롯한 해외 관계회사와 시끼보 · 고오난(江南)공장을 중심으로 한 일본내 관계회사를 긴밀하게 서로 도움으로서 공동으로 명품 생산조직을 만들어 왔는데, 근래에 와서 그 조직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 해외에서의 니트영업, 일본서 지원

시끼보는 섬유부문에 방적사업부, 직물관계를 담당하는 의료(衣料) 제1사업부, 니트관계를 담당하는 의료 제2사업부 및 생활자재사업부의 4개 사업부를 두고 있다. 이들 사업부외에도 일본내의 관계회사 및 해외 관련회사가 있어, 서로 긴밀하게 상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실 또는 텍스타일만으로는 소비자를 위한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없으며, 실에서부터 최종제품에 이르는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시끼보그룹 전체가 한마음이 되어 자랑스런 시끼보 상품의 생산을 목표로 해 왔다.

특히 작년(2002년) 하반기부터는 인도네시아에서 실을 방적하고 제직 가공까지 한 다음 중국에서 봉제하여 일본으로 납품하는 방식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생산과정에서 그룹의 각사가 서로 수요자의 요구(needs)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고, 서로의 능력을 솔직히 들어내고 도와주면서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관련회사들은 모두 독립회사로서 각기 채산을 맞추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일의 결과만이 아니라 생산과정을 중요하게 관리하면서 서로 협력을

통해 그룹의 종합된 힘을 발휘할 것을 중점과제로 삼고 있다.

시끼보는 해외에 있는 그룹회사들이 각기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작년 10월 “해외기획과”를 신설, 이들 영업활동에 대한 상호 유대를 강화하여 결집된 그룹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해외영업도 지원해 주고 있다.

니트부문을 담당하는 의료(衣料) 제2사업부를 새로 만들고 사업목표를 설정하여 니트분야 사업을 적극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다. 니트분야는 직물보다도 패션이나 트랜드(trend), 소비자의 대상, 계절 등에 따라 제품화의 방향을 정하는데 섬세한 대응이 중요하다. 직물을 담당하는 제1사업부에서는 텍스타일 판매가 중심이 되므로 현 영업체제를 유지하면서 종합적인 그룹 안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머메이드 · 텍스타일의 영업거점이 자카르타에 있는데, 자카르타의 영업담당자가 처음부터 일본의 고객과 거래하기보다는 일본의 본사 영업담당자가 직접 거래하여,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다음 인도네시아로 넘겨주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성사방식인 것이다.

◎ 전사적인 소재개발 강화

종전에는 실은 실대로, 텍스타일은 텍스타일대로 차별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앞으로는 실이나 텍스타일의 구별 없이 소비자가 원하는 종합적인 차별화가 필요해짐에 따라 작년 12월 상품개발부내에 소재개발과를 만들고, 원료에서 제품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일관되게 횡적으로 소비자나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방적원료, 실의 구조나 특성, 제직 및 편성조건, 각종 가공, 봉제에 이르기까지 총괄하여, 타사에는 없는 상품을 만들어 내야 한다. 또한 해외 생산에서도 폭 넓게, 영업센스(sense)도 살려 고객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메이커만이 할 수 있는 유익한 제안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2001년 9 · 11테러 이후, 에너지 · 코스트뿐만 아니라 임금도 상승하여, 노동생산성을 감안하면 중국이 상대적으로 생산원가가 낮다는 얘기가 간혹 들리고 있다. 생산원가가 낮다고 하던 인도네시아도 생산원가 조건만으로는 그 동안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단계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규격화된 제품의 생산에서 벗어나 차별화 소재개발을 위한 “해외기획과”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는 직물에서나 니트에서도 인도네시아에 있는 시끼보공장이라는 인식을 갖고 2001년 가을부터 기술지원뿐 아니라 영업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 해외의 유니폼 소재 일관생산 본격화

멜텍스에 대한 영업지원을 위해 제일 먼저 직물가공 설비의 광폭화(廣幅化)를 추진하여 작년 3월에 완료하였다. 그리고 그 동안 일본에서 생산하던 유니폼 및 셔츠소재의 생산을 멜텍스로 옮길 예정에 있다. 이러한 계획은 유니폼 소재에 대한 품질요구가 엄격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서히 추진되고 있다. 처음에는 멜텍스에서 생산된 생지원단을 일본에서 가공하여 납품해 왔는데, 앞으로는 서서히 제직에서 가공까지 일관생산을 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전부터 멜텍스가 생산해온 셔츠 소재의 규격화 된 생지원단은 거의 줄었고, 대신에 차별화된 직물이 늘어나면서 생산품종이 변하고 있지만, 총 생산량은 그다지 변화가 없다. 멜텍스의 생산품은 합판회사인 노무라(野村)무역의 지분까지 합쳐 시끼보가 처리하는 비중이 약 70% 정도이다.

니트제품 생산의 경우 전량을 중국에서 생산하면 SPA(제조업체 직접판매)와의 거래에서 단납기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전 생산량의 70%는 중국에서 생산하더라도 나머지 30%는 단납기 생산이나 별도 주문생산을 위해 일본내

생산설비를 사용하여 SPA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멜텍스의 니트 · 봉제공장과 시끼보 · 고오난(江南)공장의 가공공장을 활용한 그룹 전체로서의 대응이 불가피하다.